

# 기업 홍보담당자, ‘반론보도닷컴’ 기자로 나서

41명 선발... 2017년에는 200명으로 확대



한국광고주협회가 반론보도닷컴 기자 수를 대폭 보강했다.

광고주협회는 20일 여의도 컨퍼런스센터에서 ‘BB리포터 발대식’을 갖고 회원사 홍보 담당자를 중심으로 반론닷컴 회원기자(이하 BB리포터) 41명을 선발, 기업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광고주협회는 “인터넷매체가 6천개를 넘어선 가운데, 매체간 광고 경쟁 심화와 기사를 매개로 한 광고 강요, 뉴스 어부징 등으로 인한 기업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매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원사 홍보담당자들이 반론닷컴 기자로 활동하는 BB리포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B리포터는 기업 홍보담당자가 직접 반론닷컴 기자가

되어 △기업 CSR 홍보 △창의적 기업활동 촉진 △경제 및 기업 오보·왜곡기사에 대한 반론 게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광학 광고주협회 상무는 “BB리포터들이 다양한 취재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기업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 왜곡된 기업정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BB리포터를 추가로 모집, 1사 1인의 리포터를 목표로 200여 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고주협회는 지난 2012년 반론닷컴을 개설, 2014년 3월 인터넷신문으로 등록을 마치고 일부 언론의 저널리즘 일탈 사례와 기사를 빌미로 한 광고 강요 행위 공개 등을 통해 광고시장을 교란하는 유사언론행위에 대응해나가고 있다. **KAA**

유재형 기자 yoojh1999@kaa.or.kr